



식약처, 완도군과 '상생 자매결연' 체결

- 제천·상주·순창에 이어 완도까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 행보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30일 완도군(군수 김신)을 방문하여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자매결연의 주요 내용은 ▲완도군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품 홍보·구매, 고향사랑 기부 참여 및 홍보, 기관행사 개최 독려 ▲완도군 문화관광 명소 할인 혜택 제공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 2025년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으로 제천시, 상주시, 순창군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식약처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는 등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상생 자매결연'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이번 완도군과 자매결연은 이러한 상생의 행보를 더욱 확대하여 지역 사회와의 유대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날 오유경 처장은 “완도군의 우수한 자원을 알리고 지역 경제에 조금 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	책임자	과 장	정현철 (043-719-1221)
		담당자	사무관	서아람 (043-719-1222)